

#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점토대토기문화의 확산 과정 |
| II. 초기철기시대 개관      | VI. 시대와 시기        |
| III. 발생순서를 통한 상대편년 | VII. 향후 과제        |
| IV. 절대연대의 검토       |                   |

## I. 머리말

청동기시대와 무문토기시대라는 시대명의 논쟁 속에 초기철기문화의 정체성은 혼란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 무문토기 연구자들은 한국식동검과 함께 출토되는 점토대토기라는 ‘무문토기’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초기철기문화의 정체성은 무문토기가 출토된다는 것보다 ‘새로운 점토대토기문화와 함께 한반도에 전개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전 무문토기사회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단계(시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존 무문토기사회의 순조로운 발전(시기)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인식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점토대토기와 한국식동검을 기존 청동기문화의 연속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문화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으로 先史와 原史, 歷史가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발전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인식은 최근 점토대토기문화 논자들에 의해 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이 기원전 5세기 혹은 7세기 이전까지 상향조정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sup> 더욱이 송국리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연대의 시간차가 약 1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sup>2)</sup>

까지 발표되고 있어 曆年代를 중심으로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토대토기문화와 초기철기시대를 규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개개유물의 발생순서를 통한 유물조합으로 상대편년을 한 후, 절대연대측정치와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변동을 통해 각 단계의 역연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 초기철기시대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I. 초기철기시대 개관

### 1. 초기철기시대의 정의 (國立文化財研究所, 2000, 『韓國考古學辭典』)

한국고고학에서 사용되는 시대구분 용어로, 청동기시대에 이어서 새로이 유입된 철기문화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즉 한반도에서 철기의 유입과 이미 정착되어 있던 발달된 청동기문화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초기철기문화에 후기 청동기문화를 포함하여 B.C. 300년부터 서력 기원 전후까지를 초기철기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 (중략) ...

그런데 이와 같은 초기철기시대의 개념 속에도 몇 가지 모순이 있다. 먼저 초기철기시대의 개념 속에 청동기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즉 초기철기시대의 문화에 세형동검과 점토띠토기 등을 포함하는 것은 청동기적인 요소를 농후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을 초기철기시대로 분류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만약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되는 단계로 잡는다면 한반도 북부지방에서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으나, 남부지방에서는 이

- 
- 1) 李淑任, 2003, 『江原地域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翰林大學校碩士學位論文  
 金奎正, 2004,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檢討 -圓形粘土帶土器를 中心으로-』, 『研究論文集』4, 湖南文化財研究院  
 李和鍾, 2004, 『中部地方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漢陽大學校碩士學位論文  
 \_\_\_\_\_, 2006, 『江原地域 圓形粘土帶土器文化의 特徵과 編年』, 『江原考古學報』7·8, 江原考古學會  
 徐吉德, 2006, 『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석사학위논문  
 2) 이홍중, 2006,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60, 한국고고학회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청동기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시기에는 철기의 존재가 극히 적고, 철기의 등장이 B.C. 2세기경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후까지를 한 시대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끝으로 초기철기시대라는 명칭의 문제이다. 이 용어는 ‘철기시대 초기’에서 나온 말로서 시대의 명칭으로 부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 때문에 초기철기시대를 ‘철기시대’로 부르자는 주장이 있다.

위의 정의처럼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명에 대해 용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체 용어사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무문토기시대’, ‘철기시대’나 ‘삼한시대’ 등 여러 용어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점토대토기·한국식동검·전국계 주조철기·마한으로 이루어진 사회상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더불어 고조선과 부여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초기국가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다.

## 2. 절대연대관의 변천

최초로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명을 부여하고 정의를 내린 김원룡<sup>3)</sup>은 초기철기시대를 기원전 300년경에서 기원전후한 시기폭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점토대토기 등장시기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초기철기시대의 개시연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철기시대의 상한은 과연 언제인가? 언제나 그렇듯이 어느 특정시대의 상한이라는 것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올 수는 없는 듯하다. 김원룡에 의해 주창된 초기철기시대 기원전 300년 상한설은 박순발에 의해 보완된다. 즉, 소위 ‘燕將秦開’의 고조선 침공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점토대토기 등장시점이 燕昭王代라는 견해<sup>4)</sup>를 발표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견부는 한국식동검을 비롯한 청동기와 瀋陽公主屯后山 유적<sup>5)</sup>의 점토대토기의 연구를 통해 기원전 4~3세기대에 한국식동검문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sup>6)</sup>하여 초기

3) 金元龍, 1987,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4)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朴淳發,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 過程」, 『鐵江考古』創刊號, 忠清文化硏究院

5) 周陽生, 1990, 「新民縣公主屯后山青銅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1990-2

철기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였다.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AMS를 포함한 C14 연대측정치가 증가하고 그것을 점토대토기문화 논자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점토대토기문화의 개시연대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현재의 점토대토기 연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점토대토기문화 등장을 기원전 4~3세기대보다 이른 기원전 5세기나 7세기 이전까지 소급하게 되었으며 이런 연구경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하한에 대해서는 기원전후한 시기로 보는 편이 일반적이었으나, 영남지방에서 기원전 1세기대로 소급되는 목판묘군(경주 조양동, 대구 팔달동, 창원 다호리, 경산 조영동, 함안 도항리 유적 등)이 조사되면서 상향조정되고 있다. 군집하는 목판묘군과 와질토기의 등장, 전국계 철기문화의 2차 파급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기원전 1세기대로의 하한연대 상향조정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 3. 점토대토기와 한국식동검의 등장 시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점토대토기의 등장시점은 꾸준히 올라가 기원전 3세기 → 기원전 5세기 → 기원전 7세기대까지 상향조정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식동검의 등장은 기원전 4세기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sup>7)</sup>.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한국식동검유적으로 인정받는 대전 괴정동 유적<sup>8)</sup>과 심양 鄭家窪子 유적 6512호묘<sup>9)</sup>의 절대연대 비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춘추말(기원전6·5세기)로 편년된 鄭家窪子 유적 6512호묘에서 나팔형동기·원개형동기 등과 함께 요령식동검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한국식동검문화의 등장시기가 정가와자 6512호의 연대까지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요령식동검이 반드시 한국식동검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김파형동기와 같은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청동기가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므로 두 유적

6) 李健茂, 1994, 「韓國式 銅劍文化的 性格-成立背景에 대하여」,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遺物을 통하여 본 社會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7) 李健茂, 1994, 위의 글

李清圭, 2000, 「遼寧 本溪縣 上堡村 出土 銅劍과 土器에 대하여」, 『考古歷史學誌』16, 東亞大學校博物館

8) 이은창, 1968, 「大田 槐亭洞出土一括遺物」, 『考古學』2, 한국고고학회

9) 沈陽古宮博物館·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靑銅時代墓葬」, 『考古學報』1975-1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식동검의 상한을 기원전 4세기보다 올려볼 수 있는 근거는 현 상황에서 거의 없다.

따라서 만약 점토대토기의 등장시점이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소급된다면, 한국식동검의 등장은 어느 정도 시간차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청규의 견해<sup>10)</sup>가 주목된다.

‘동일한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하는 세형동검이 중국 동북지방과 남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령지방의 점토대토기가 그 지역의 세형동검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에 한반도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요동지방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유입은 기원전 4세기경 초기세형동검 혹은 비파형-세형의 중간형 동검단계 이전이고, 요동과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의 지역화는 기원전 4세기경 시작되고, 그 지역화는 기원전 3세기초 연의 고조선 침공 이후 가속화된다고.’

이것은 점토대토기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한국식동검을 비롯한 청동기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시기차를 인정할 때, 과연 초기철기시대를 언제부터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즉, 점토대토기가 등장하는 시점부터인가, 한국식동검이 등장하는 시점부터인가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VI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III. 발생순서를 통한 상대편년

한반도에서 점토대토기의 등장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 서울·경기 및 호서지방을 포함하는 중서부지역이다.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점토대토기문화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는 곳으로 이후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이 지역의 유적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순서에 의한 유물조합으로 상대편년하여 시기구분을

10)李清圭, 2000, 위의 글

행하겠다.

## 1. 발생순서의 검토

점토대토기단계의 유적을 편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발생순서에 의한 유물의 조합을 편년의 근거로 사용하겠다. 물론 개개 유물들은 型式學的으로 더 세분되지만, 이런 세분은 큰 틀을 이해하기에 오히려 적당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분만을 사용하겠다.

### ① 토기

- 점토대토기 : 원형점토대토기 → 삼각형점토대토기
- 파수 : 환상파수 → 조합우각형파수 → 봉상파수
- 두형토기 대각 : 단각 → 공심형 장각 → 실심형 장각

### ② 동경 : 조문경 → 3구식정문경 → 2구식정문경 → 한경

### ③ 금속기 : 방패형동기·원개형동기·검파형동기 → 동과·동모 → 동령류 → 철기

### ④ 석기 : 유구석부·석도 미공반 → 공반

## 2. 단계설정

위의 발생순서를 기준으로 중서부지방의 점토대토기단계의 주요 유적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12)</sup>

### -1단계

: 한반도에서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다. 점토대토기·환상파수부장경호와 삼각형

11) 청천강-원산만-영동지방을 경유한 전파루트가 상정되기도 하지만(박순발, 2004, 위의 글) 아직 이 루트를 확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점토대토기문화 서해안 경유설에 따라 논지를 전개한다.

12) 단계 설정은 필자의 前稿를 기초로 하였다.

拙稿, 2006, 「서울·경기지방 점토대토기문화 試論」, 『고고학』제5권 제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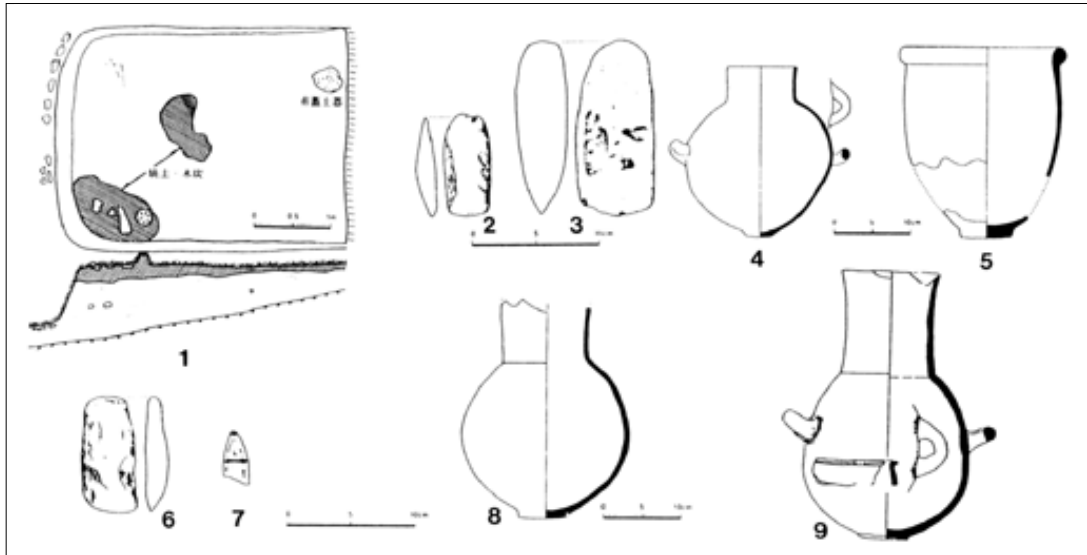


그림 1. 1단계(1~5:수석리 3호주거지, 6~8:동 6호주거지, 9:백령도)

석축 등이 나타나지만, 유구석부 등 재지계 석기는 출토되지 않는다. 아직 다른 지역으로 점토대토기문화가 파급되지 않는 단계이다. 현 상황에서 확실히 1단계의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남양주 수석리 유적뿐으로 한강유역을 포함한 중서부해안지역이 점토대토기의 최초 도래지일 가능성이 높다. 분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령도 출토 환상파수부장경호가 이 시기의 분묘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 2단계

: 점토대토기문화가 재지문화와 접변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점토대토기는 환상파수 및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 그리고 단각과 공심형 장각 두형토기와 공반된다. 이 단계부터 유구석부 등 재지계 석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국식동검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안성 반제리·망이산성, 인천 검단지구, 보령 교성리 유적 등이 있다. 안성 반제리 유적에서 석판묘가 등장하는데 적석은 없다.

### - 3단계

: 한국식동검 등 청동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환상파수부장경호는 사라지며, 일부 주거지의 입지(특히 호서지방)는 비고가 높은 산정부에서 평지상의 구릉이나 충적대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응봉·아차산,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부여 구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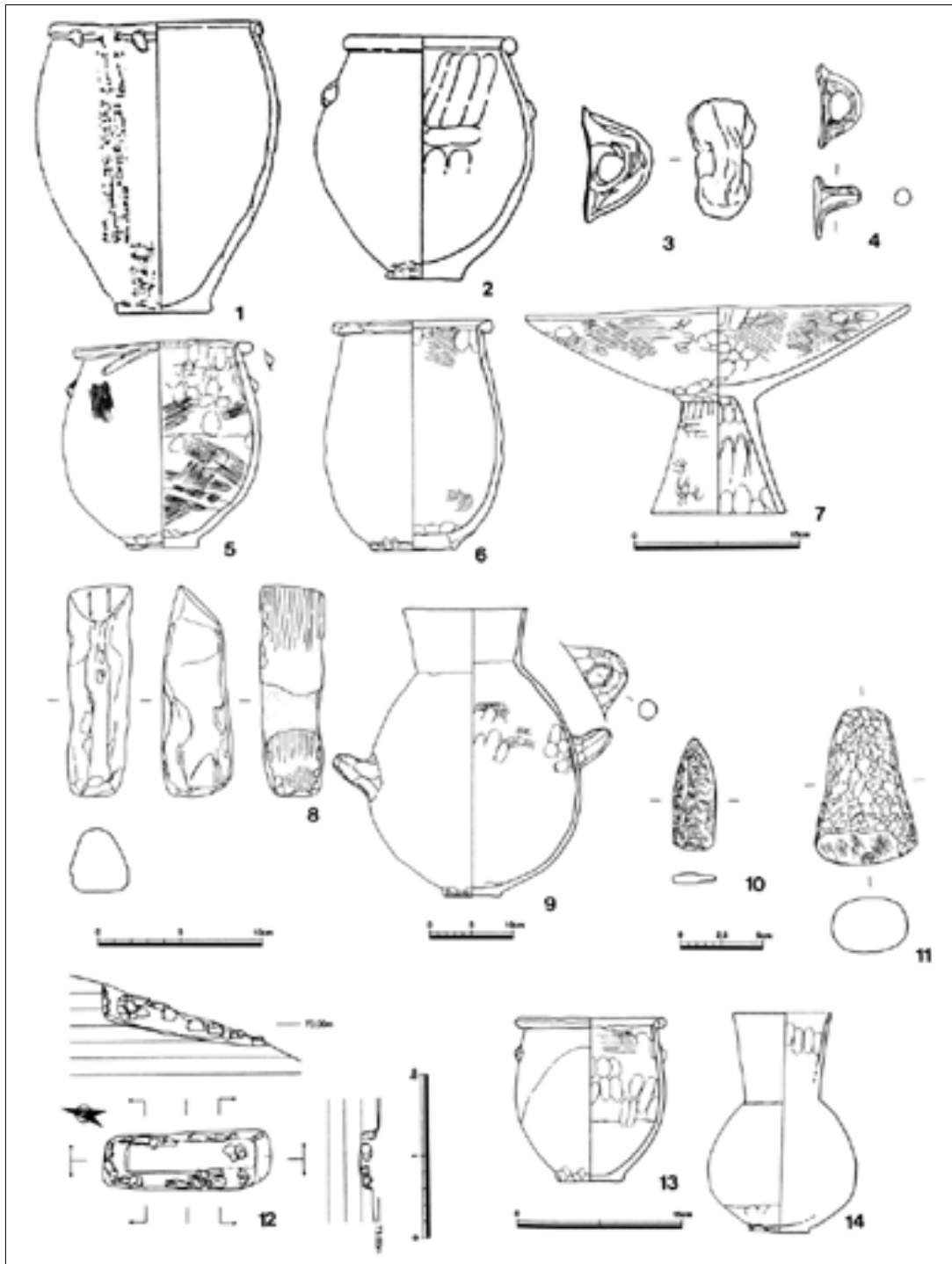


그림 2. 2단계(1~3:교성리 6호, 4·5:반제리 초기철기시대 9호주거지, 6·7:동 13호 주거지, 8:동 14호 주거지, 9:동 21호 주거지, 10·11:동 26호 주거지, 12~14:동 2호 토광묘)

터 유적, 傳는산 출토품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데, 원형점토대토기·조합우각형파수·한국식 동검·다뉴경·유구석부의 유물조합은 초기철기시대 물질문화의 典型으로 남부지방과 일본 북부구주지역으로 파급된다. 대전 괴정동이나 아산 남성리 유적 같은 적석석관묘가 등장하여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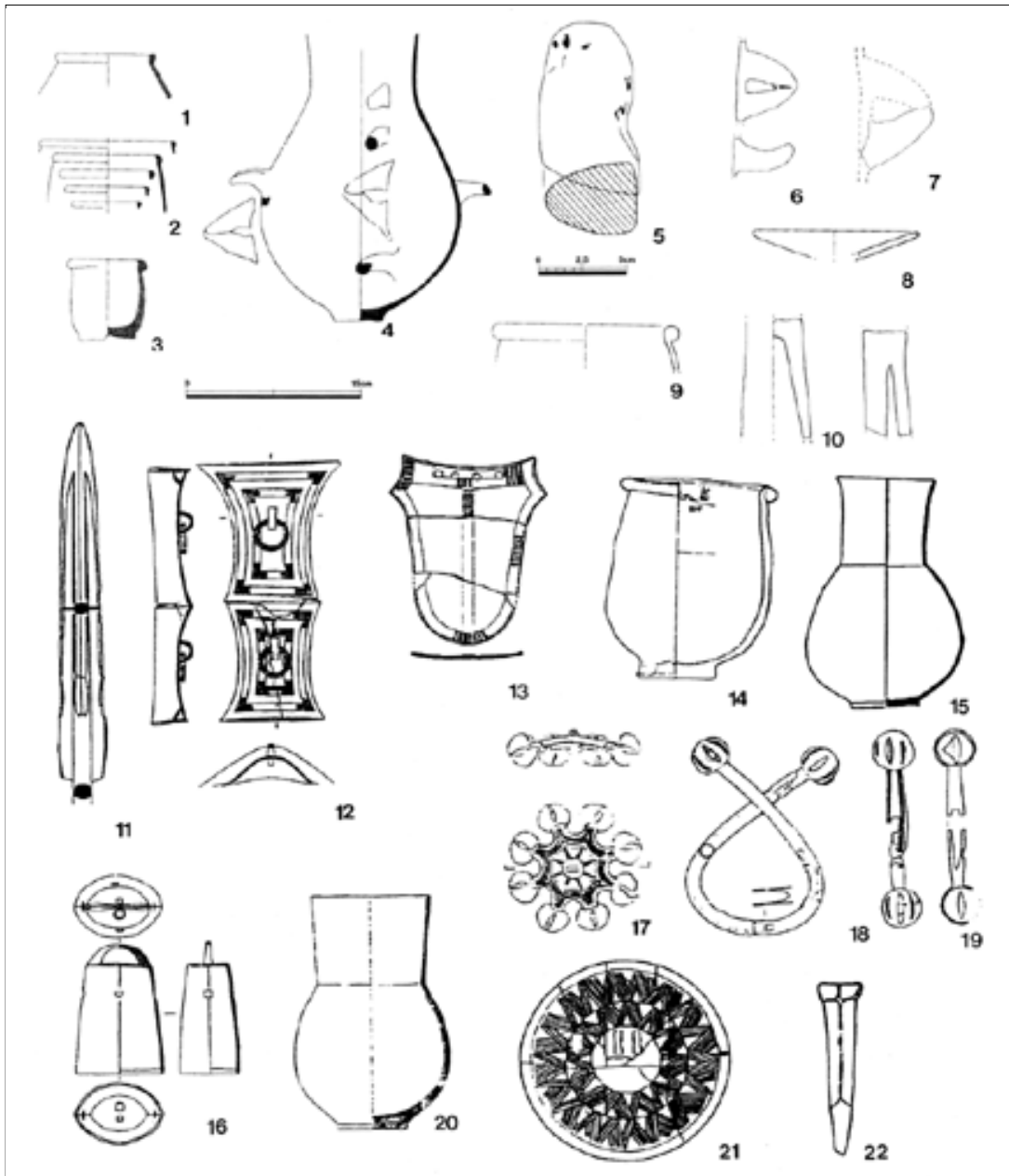


그림 3. 3단계(1~5:옹봉, 6~10:아차산, 11~16:괴정동, 17~19:傳는산, 20~22:남성리)

행한다.

한편 이 시기는 청동기의 조합에 의해 작은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즉 방패형동기·검파형동기 중심의 괴정동·남성리 유적 단계와 동모·동과 중심의 구봉리 유적 단계, 그리고 동령류 중심의 밧 전 논산·전 덕산 유적 단계가 그것이다. 이에 상당하는 생활유적의 세분도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출토자료가 적어 여의치 않다. 향후 이 단계에 상당하는 대규모 생활유적이 반드시 확인될 것이라 생각한다.

#### - 4단계

: 전국계 철기문화와 함께 2구식정문경이 등장하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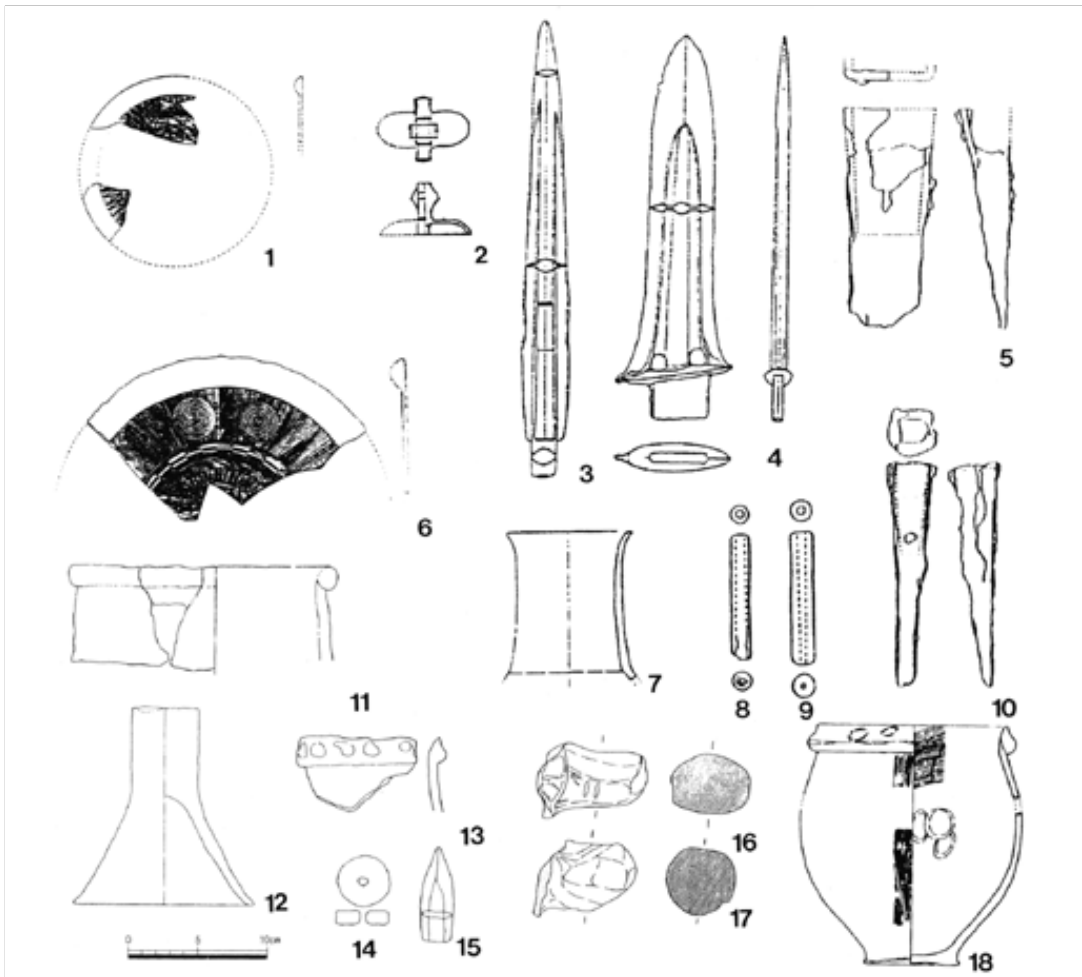


그림 4. 4단계(1~10:소소리, 11~17:가와지, 18:오이도)

새롭게 등장한 철기문화로 인해 한국식동검문화는 점차 쇠퇴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부여 합송리, 당진 소소리 등 전국계 철기문화가 나타나는 곳과 일산 가와지, 시흥 오이도 등 삼각형 점토대토기와 명사리식 토기(봉상파수부호)가 공반되는 곳이 있다.

### -5단계

: 점토대토기문화에 새로운 철기·토기 문화가 더해지는 시기이다.

중서부 지방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영남지방에서는 전국계 철기문화의 2차 파급으로 단조철기가 나타난다. 철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부장품이 월등한 목관묘군이 등장한다. 또 새로운 제도술로 인해 와질토기가 등장한다. 새로운 기종인 단경호나 洗도 나타나지만, 기존 무문토기의 기종인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나 점토대토기도 와질화된다. 이와 더불어 한계 청동기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면삼각형동촉과 한경편이다. 단면 삼각형동촉은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출토된 바 있다. 또 독서리에서 채집된 한경편은 주연부의 폭이 약 1.8cm에 이르는 데 형태로 보아 휘룡문경이나 연호문경의 편으로 보인다. 김해 회현리 패층에서도 휘룡문경편이 출토된 바 있다.<sup>13)</sup> 이처럼 출토예가 많지는 않지만 중서부 해안지방으로도 삼각형점토대토기와 漢系 유물이 유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5단계(독서리)



그림 6. 독서리 출토 한경편



그림 7. 회현리 출토 한경편

13) 釜山大學校人文大學考古學科, 2002, 『金海會峴里貝塚』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식동검과 같은 청동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으며, 재지세력과 마찰을 피해 고지성 취락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3단계에 이르면 재지사회보다 확실한 우위에 서게 되어 한국식동검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전국계 철기문화의 수용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이후 5단계에서는 다시 중도식토기 및 와질토기문화를 가진 집단과 병존하고 대립하면서 서서히 동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IV. 절대연대의 검토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각 단계의 절대연대를 살펴보겠다.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측정된 탄소연대측정치와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변동을 함께 고려해 절대연대를 추정하겠다. 다음의 표는 위에서 분기한 단계가 확실한 유구의 탄소연대측정치이다.

유적	유구	단계	시료	측정방법	측정기관	측정치(BP)	눈금맞춤연대 (Cal BC)	출전
남양주 수석리	3호주거지	1	목탄	C14	미시간대	2230±280		a
	3호주거지	1	목탄	C14	미시간대	2340±120		
안성 반제리	타원형2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2580±80	790 or 620	b
	타원형6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2530±40	660	
	장방형3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2520±60	760 or 620	
	장방형8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3070±120	1480 or 1285	
	말각방형3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2370±40	450	
	말각방형7호주거지-7	2	목탄	AMS	서울대	2540±40	780 or 610	
	말각방형10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2540±50	655	
	말각장방형18호주거지-6	2	목탄	AMS	서울대	2450±80	600	
	말각장방형19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2500±60	655	
	세장방형7호주거지	2	목탄	AMS	서울대	2780±80	920	
구상유구5호2	2	목탄	AMS	서울대	2470±40	590		
강릉 방동리	B-1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510±50	640	c
	C-1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450±60	590	

강릉 방동리	C-2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320±60	380	c
	C-6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310±60	350	
	C-7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600±60	720	
	C-8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440±60	590	
금산 수당리	M-1	3	목탄	C14	Beta	2450±50	525	d
원주 법천리	22호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370±30	455	e
용인 대덕골	2호수혈	3	목탄	AMS	서울대	2550±60	780 or 615	f
	4호수혈	3	목탄	AMS	서울대	2640±60	830	
수원 울전동	2호수혈	3	목탄	AMS	서울대	2780±40	920	g
	4호수혈	3	목탄	AMS	서울대	2520±40	780 or 600	
수원 울전동 II	3호수혈	3	목탄	AMS	서울대	2470±40	730 or 640 or 560	h
			목탄	AMS	서울대	2510±50	770 or 620	
			목탄	AMS	서울대	2410±80	720 or 470	
	4호수혈	3	목탄	AMS	서울대	2450±50	700 or 480	
강릉 송림리	송림리5호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460±30	585	i
	송림리12호주거지	3	목탄	AMS	서울대	2850±60	1055	
원주 갈동	3호토광묘	4	화살대	AMS	서울대	2180±60	320 or 210	j
	구상유구	4	목탄	AMS	서울대	2540±80	780 or 620	
	1호수혈	4	목탄	AMS	서울대	2650±60	800Cal BC	
	2호수혈	4	목탄	AMS	서울대	2590±80	800 or 620	

[출 전]

- a: 김원룡, 1969, 「한국고고학에서의 방사성탄소연대」, 『고고학』 제2집, 한국고고학회  
 b: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안성 반제리 유적』  
 c: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방동리 유적』  
 d: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2, 『금산 수당리 유적』  
 e: 국립중앙박물관, 2002, 『법천리2』  
 f: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대덕골 유적』  
 g: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수원 울전동 유적』  
 h: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수원 울전동 유적II』  
 i: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동해고속도로 확장, 신철구간(송림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j: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원주 갈동 유적』

AMS 측정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AMS 측정법의 오차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AMS 결과 나타난 측정연대는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데, 그것은 대기 중의 C14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보정곡선(혹은 교정곡선, 그림8 참조)에 의해 실제 측정된 수치를 曆年代로 보정하고 있다. 曆年代 보정을 위한 국제표준 데이터베이스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국제보정곡선, 즉 IntCal은 구미산 목재의 연륜자료를 이용한 약 11,800년 전까지의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MS측정을 하는 유일한 기관인 서울대학교 공동기기연구원에서 OxCal을 사용하여 연대측정을 한 후 IntCal98 혹은 IntCal04로 역연대 보정과 연대누금맞춤을 한다. 하지만 OxCal과 IntCal에 의해 역연대로 눈금맞춤하더라도 오차의 가능성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고목효과와 해양 리저버효과 때문이다.<sup>14)</sup>

고목효과란 탄화목 등 목탄에서 유래하는 탄소를 사용해 연대측정하는 경우 탄화가 일어났던 시점과 측정된 나무의 연대 사이에 차이가 생겨 연대추정의 오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木材는 화재로 소실된 주거지가 아니라면 재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구의 조성연대보다 오래된 측정치가 나올 가능성은 다분하다. 또 心材는 나이테만큼 오래된 연대가 측정되기 때문에 목탄의 연대 해석에도 이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목탄을 시료로 한 탄소연대측정치는 실제보다 오래된 연대가 측정된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가 폐기될 때 사용되었던 토기형식과 수혈주거지에 가구된 목재의 벌채 시점 사이에는 주거지의 존속기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토기가 사용된 연대”와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시행된 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의 연대측정<sup>15)</sup>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에서 출토된 목탄을 AMS의 시료로 선택하지 않았다. 더불어 탄소연대측정을 통한 절대연대 도출이라는 것이 결국 주거지 등의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형식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조리 시의 눌은 흔적이나 끓어서 넘친 흔적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 그 외에 장작의 연소로 인한 토기의 그을음, 논의 말뚝, 탄화미, 칠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벌채연대와 시차, 출토상황의 엄밀성의 보장, 토층 중의 이동가능성, 출토예의 희소성 때문에 사용예가 많지 않다. 하지만 목탄을 시료로 택하지 않아도 해양 리저버 효과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14) 春成秀彌·今村峯雄 編著, 2004,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15) 藤尾眞一郎, 2004, 『韓國・九州・四國の實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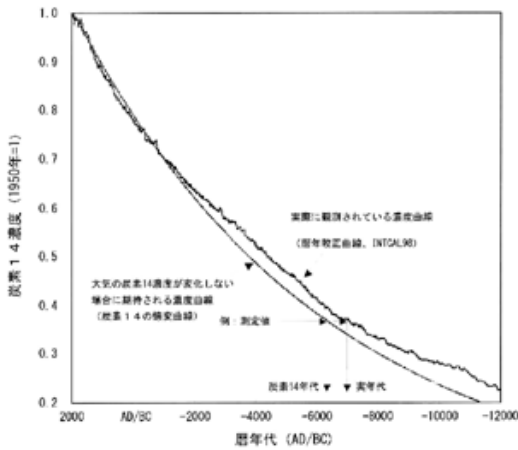


그림 8. 측정연대와 보정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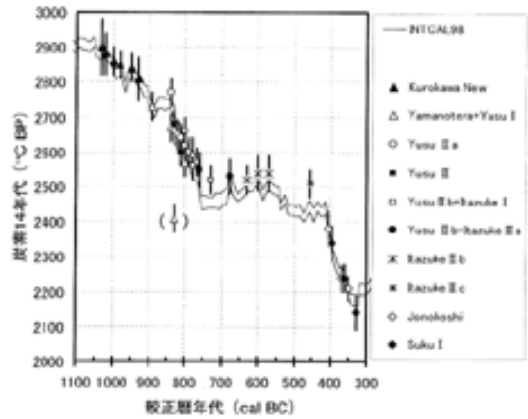


그림 9. 縄文만가~彌生중기 AMS 측정치

해양표면 수십m에서 100m의 해양표층수는 대기와 끊임없이 이산화탄소(Co2)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에 가까운 탄소14 농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중층과 심층의 해수는 탄소 14의 環境으로 인해 대기에 비해 농도가 10~20% 정도 낮다. 그런데 해양 전체는 아주 느리지만 순환이동하고 있어 중층과 심층 해수의 일부가 해양표층수로 혼합된다. 이로 인해 해양표층수의 탄소14 농도는 대기에 비해 약 5% 낮게 된다. 이것을 탄소14연대의 해양 리저버 효과 (marine reservoir effect)라고 부르는데, 해역·시대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tCal98에서는 해양 리저버 효과를 400년으로 계산한 역연대 보정 데이터베이스가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음식 조리 시에 사용된 식재료가 해산물이거나 이를 식용하는 동물일 경우, 또는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일 경우 해양 리저버 효과에 의한 오차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실제 新井宏는 해양 리저버 효과로 인해 해안에서 5km 이내에 속하는 유적의 AMS 측정에서 산출된 연대는 다른 지역보다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한편 IntCal 상에서 BP 약 2500~2400년으로 측정된 연대가 보정연대로 BC 약 750~400년에 상당하는 문제가 있다.(그림 9 참조) 소위 '2400년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보다 약간 빠른 BP 약 2750~2500년의 측정연대는 보정연대로 Cal BC 약 850~750년에 상당한다. 이로 인해 측정연대 상 겨우 몇 십 년의 오차가 보정연대 상으로는 수 백 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16) 新井宏, 2006, 「炭素14による彌生時代逆上論の問題點」, 『東アジアの古代文化』127

눈금맞춤연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와 더불어 ‘측정되고 보정된 연대의 오차범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측정된 연대 중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눈금맞춤연대가 가장 믿을 만한 연대인지, 아니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새로운 연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 확률분포 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눈금맞춤연대’가 가장 믿을 만한 것이겠지만, 최근에는 오래된 연대로 올려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기조는 국내보다 일본의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져 잘 알려져 있듯이 야요이시대 조기의 연대를 기원전 930년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최소한 기원전 1000년대에 있어서는 측정 후 보정된 연대 중 평균보다 낮은 연대, 즉 ‘BP ±’에서 ‘+’는 버리고 ‘-’쪽에 치우쳐 택해야 한다고 보고 싶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고목 효과나 해양 리저버 효과에 의해 측정연대가 높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리고 시기 상 빠른 유물과 늦은 유물이 공존할 때 늦은 연대를 택하는 것이 고고학적 방법론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굴조사에서 명확하게 증명된 주거지의 선후관계와 상반된 AMS측정치도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강릉 방동리 유적 C-7·8호 주거지의 경우 8호 주거지(古)가 7호 주거지(新)보다 층서 상 선행하지만, AMS에 의한 눈금맞춤연대는 C-8호가 525 Cal BC(新)로, C-7호가 590 Cal BC(古)로 측정되어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절대연대가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고고학적 방법론에 의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AMS측정치와 고고학적 방법론을 함께 고려하여 각 단계의 절대연대를 살펴보겠다.

먼저 1단계의 절대연대를 살펴보자. 남양주 수석리 유적은 기원전 4~3세기대에 해당하는 C14 측정치가 알려져 있지만, 측정된 개체수가 너무 적고 시료로 사용된 목탄의 출토상황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1단계의 상한은 당시 요령 일대의 정치·문화적 변동과 관련하여 추론해 보고자 한다.

춘추·전국시대 요령일대에서 점토대토기를 공반하는 문화로는 량취연[涼泉 문화]가 잘 알려져 있다. 涼泉문화는 遼中과 遼北지방을 중심으로 요령식동검·선형동부·점토대토기·흑색 마연장경호·고병두·환상파수로 구성된다. 상한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여 서주 중만기설,<sup>17)</sup> 춘

17) 鐵嶺市博物館, 1992, 「遼北東部地區幾處青銅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1992-1

18) 許志國·庄艷杰·魏春光, 1993, 「法庫石砬子遺址及石棺墓調查」, 『遼海文物學刊』1993-1

추 초기철,<sup>19)</sup> 전국 초기철<sup>20)</sup> 등이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춘추 초기<sup>21)</sup> 혹은 춘추 말기<sup>22)</sup>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차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涼泉문화의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미송리형 토기문화를 涼泉문화의 일부로 보게 되면 涼泉문화의 상한이 서주 중만기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렇지 않고 미송리형 토기문화와 涼泉문화를 따로 인식하게 되면 涼泉문화의 상한연대는 그 이후로 내려오게 된다. 이와 더불어 涼泉문화를 미송리형 토기문화와 별개로 인식하더라도 西豊 忠厚屯 석곽묘<sup>23)</sup>와 朝陽 袁台子<sup>24)</sup>에서 나온 이중구연의 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涼泉문화의 상한은 달라진다. 만약 西豊 忠厚屯 석곽묘와 朝陽 袁台子 유적의 이중구연의 용을 점토대토기로 보면 涼泉문화의 상한은 춘추전기 정도까지 소급될 수 있다. 반면 西豊 忠厚屯 석곽묘와 袁台子 유적에서 나온 이중구연의 용을 점토대토기로 보지 않는다면 涼泉문화의 상한은 자연히 춘추말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최근 국내학계의 견해는 이와 같다.<sup>25)</sup>

김미경은 西豊 忠厚屯 석곽묘에서 출토된 미송리형 토기에 주목하면서 미송리형 토기나 선형동부가 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양상은 보편적이지 않는 특수한 예로 이것을 근거로 涼泉문화의 상한을 기원전 8세기까지 올려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二道河子 1호 석곽묘와 忠厚屯 석곽묘를 涼泉문화의 가장 이른 단계가 아닌 요동지역 미송리형 토기문화의 제일 마지막 단계(기원전 7세기 중엽 ~ 6세기 초)로 보고 있다. 이성재도 涼泉문화와 미송리형 토기문화를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遼陽 二道河子 1호 석곽묘와 西豊 忠厚屯 석곽묘를 涼泉문화가 아닌 미송리형 토기문화의 마지막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sup>27)</sup>

이렇다 하더라도 朝陽 袁台子나 西豊 忠厚屯 석곽묘에서 출토된 이중구연의 용을 점토대토기의 조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朝陽 袁台子 유적의 이중구연 용과 이중구연

19) 辛巖, 1995,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初探」, 『遼海文物學刊』1995-1

20) 鐵嶺市博物館, 1992, 위의 글

21) 박순발, 2004, 위의 글

22) 金美京, 2006, 「美松里型土器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60, 한국고고학회

李成載, 2007, 『중국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 연구』, 崇實大學校碩士學位論文

23) 裴躍軍, 1986, 「西豊和隆의兩座石棺墓」, 『遼海文物學刊』創刊號

24) 王成生, 1991, 「概述近年遼寧新發見青銅豆劍」, 『遼海文物學刊』1991-1

25) 金美京, 2006, 위의 글

李成載, 2007, 위의 글

26) 金美京, 2006, 위의 글

27) 李成載, 2007, 위의 글

<p>BC 800</p> <p>I 段 層</p>							
<p>BC 600</p> <p>II 段 層</p>							
<p>BC 400</p> <p>III 段 層</p>							
<p>BC 300</p> <p>IV 段 層</p>							
<p>BC 200</p>	<p>1·2·3·4:遼陽 二道河子(鄒慶華 1977), 4·5·9:西豐 忠厚屯(賈國軍 1986), 6·7:朝陽 黃台子(王武生 1991), 10·13·14:沈陽 鄭家窪子 6312號墓(沈陽故宮博物館·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11·12:沈陽 鄭家窪子(安志敏·鄧乃武 1989), 15:吉林 東豐 龍嶺山(洪峰 1987) 16·25:沈陽 鄭家窪子 2號墓(安志敏·鄧乃武 1989), 20·23·24·29:新民 公主屯(周陽生 1990), 17·21·27·45·49·55:開原 國山(曹桂林外 1992), 18:西豐 沙河(曹桂林外 1992), 19·26:西豐 安家溝(曹桂林外 1992), 22·52:鉄嶺 塔台(周向永 1996), 28:昌圖 西台子(曹桂林外 1992), 30:西豐 山門子(曹桂林外 1992), 31·32·37·40·60·68·70:本溪上堡村(魏海波·鄧志龍 1998), 33·41·50·51:本溪 張家窪子(賈從 1994), 34·42·44·45·48:開原 八杖溝(曹桂林外 1992), 35:岫巖 石砬子(許志國外 1993), 38:吉林 東豐寶山(洪峰 1987), 38·39·47·53·54·56·57·58·59·61·69·71·72:遼陽 蓮花堡(王增新 1964), 55·62·64·66:吉林 東豐大架山(金旭東外 1988), 63·67:遼陽 亮甲山(孫守道·徐東麗 1964)</p>						

그림 10. 박순발(2004)의 요령지역 점토대토기의 편년안

천발이라는 유물조합이 심양 공주둔 후산 유적에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유적의 문화가 계통상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점토대토기문화와 확연한 관련을 보이는 것은 미송리형 토기와 공반되지 않는 凉泉문화로 그 중심지는 公主屯后山 유적과 鄭家窪子 유적으로 미루어 보아 遼中지역이다. 요중지역에 凉泉문화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鄭家窪子 6512호 단계로 절대연대로는 기원전 6~5세기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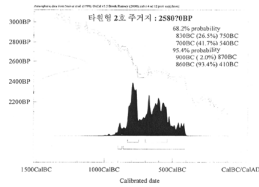
한편 이 시기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전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춘추 말 ~ 전국 초 燕의 요서진출이다. 즉 기원전 8~7세기 대 요서지방에 있었던 山戎에 위협을 느꼈던 연은 齊에 요청하여 산융을 정벌하게 되는데, 이런 제가 산융을 정벌한 것은 기원전 5세기 초이다. 여기서 산융은 東胡族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당시 동호는 기원전 5~3세기 대 요령성 서쪽지역의 각 소수민족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sup>28)</sup> 이와는 달리 당시 요서지방 문화담당자가 산융이나 동호가 아닌 朝鮮이나 濊貊 계통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sup>29)</sup> 문화담당자와 상관없이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연나라 문화요소가 요서지방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요서지방에 정치적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은 당시 요하 일대에 있었던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점토대토기 문화는 이런 과정에서 요중 지방의 주민이주로 한반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1단계 점토대토기문화의 등장은 燕과 齊의 요서진출, 요중지역 凉泉文化와의 시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기원전 6세기 말이나 5세기 초 정도로 보고 싶다.

다음 2단계의 절대연대를 살펴보자. AMS 측정치는 안성 반제리 유적만 알려져 있는데, 보고서에서 초기철기시대라고 추정된 시료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오차가 큰 장방형 8호주거지와 세장방형 7호주거지의 측정치를 제외한다면, 눈금맞춤연대는 790~450 Cal BC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의 상한이 기원전 6세기말 또는 5세기초 정도이어서 2단계의 눈금맞춤연대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측정치 역시 800 cal BC ~ 400 Cal BC에 모여 있어 2400년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모두 주거지의 목탄시료를 분석한 절대연대로 분포범위가 넓고 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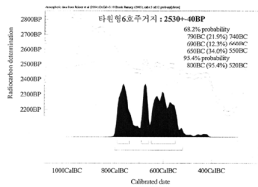
28) 宋鎬景, 1999, 『古朝鮮國家形成過程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9) 복기대, 2004, 「기원전 7~4세기대 요서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관하여 -진개 동정을 중심으로」, 『문화사학』21, 한국문화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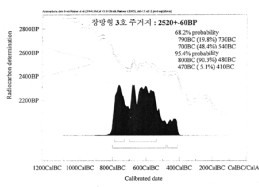
\_\_\_\_\_, 2005, 「요서 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의 관계」,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지식산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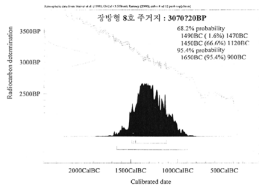
반제리 티원형2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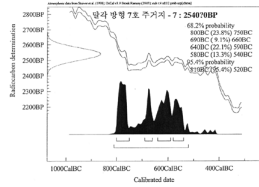
반제리 티원형6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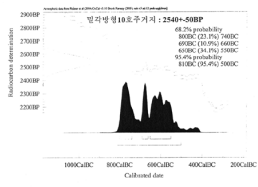
반제리 장방형3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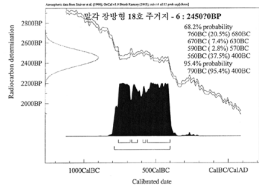
반제리 장방형8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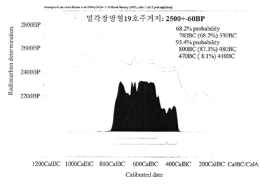
반제리 말각장방형7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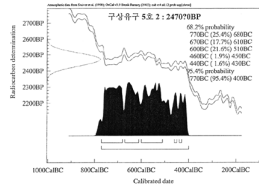
반제리 말각장방형10호주거지



반제리말각장방형18호주거지



반제리말각장방형19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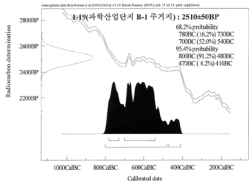


반제리 구상유구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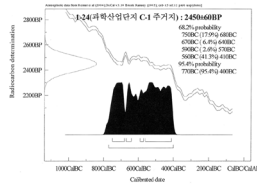
지역의 凉泉文化의 상한보다 빠른 연대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전체적인 눈금 맞춤연대의 분포가 다음의 3단계보다 이르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다. 3단계의 절대연대를 통해 2단계의 연대를 추론하겠다.

다음 3단계의 절대연대를 살펴보자. 눈금맞춤연대는 가장 이른 1055, 920 Cal BC와 가장 늦은 380, 350 Cal BC를 무시한다면 780 ~ 455 Cal BC 사이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방동리 C-7호 주거지, 대덕골 4호 수혈을 제외하면, 모든 3단계 유적의 IntCal 곡선 상의 보정연대를 살펴보면 800 cal BC가 상한이며 400 Cal BC가 하한이다. 또 눈금맞춤연대 역시 이 연대폭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치는 이전까지 점토대토기의 상한을 기원전 8~7세기대로 올리는 주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것은 IntCal 곡선 상의 2400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이른 연대인 기원전8~7세기의 연대를 취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점토대토기문화의 발생지인 요하유역 凉泉文化의 존속기간이 기원전 6세기 ~ 4세기대이고,<sup>30)</sup> 3단계에 공반되는 한국식동검이 춘추시대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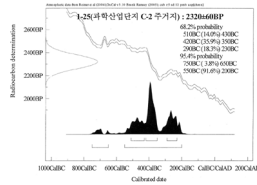
따라서 3단계는 이 시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한국식동검문화를 고려하여 曆年代를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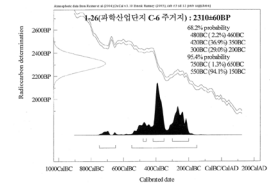
방동리 B1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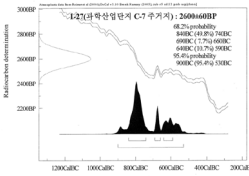
방동리 C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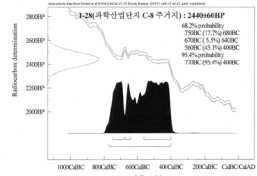
방동리 C2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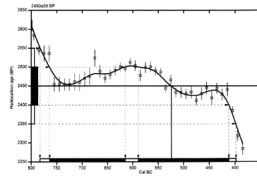
방동리 C6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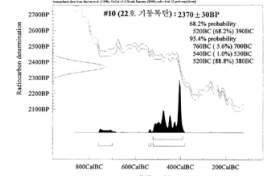
방동리 C7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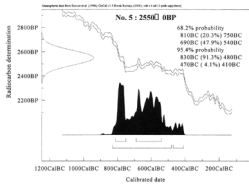
방동리 C8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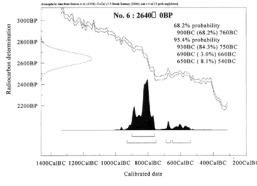
수당리 M1호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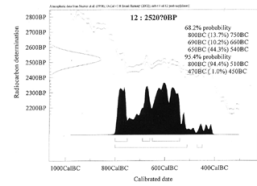
범천리 22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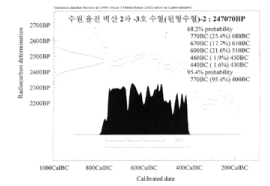
대덕골 2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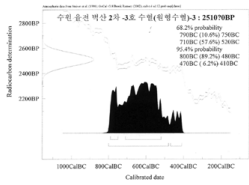
대덕골 4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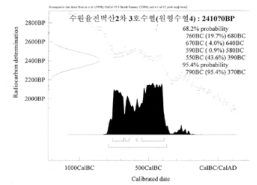
울전동 1차 4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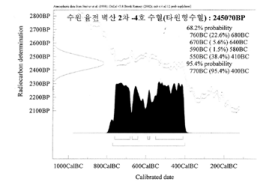
울전동 2차 3호 수혈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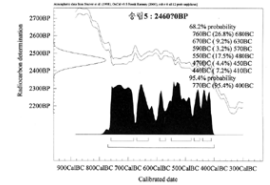
울전동 2차 3호 수혈②



울전동 2차 3호 수혈③



울전동 2차 4호 수혈



송림리 5호 주거지

보고자 한다. 한국식동검분화의 등장은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 요하일대의 청동기문화의 파급으로 인해서이다. 鄭家窪子 유적과 공주둔 후산 유적은 심양을 중심으로 한 요충지역과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상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어 왔다. 이 鄭家窪子 6512 호묘의 연대는 춘추말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식동검이 요병식동검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이 없다면, 한국식동검이 출토되는 3단계의 상한이 기원전 5세기대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

30) 이성재, 2007, 위의 글

다만 동검을 제외한 나팔형동기·원개형동기 등 여타 유물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이어서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한국식동검문화에 대해 이견부<sup>31)</sup>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문화로 대표되던 재래문화에 요령지역의 요령식동검문화에서 새롭게 가치를 친 청동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성립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절대연대는 주거지와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기원전 4세기 전반을 상한으로 보고 있다. 필자 역시 이 견해를 따라 한국식동검이 등장하는 3단계의 상한은 기원전 4세기 전반이 안정적인 연대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2단계의 절대연대는 자연히 기원전 5세기대가 된다. 한편 이 3단계의 절대연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물이 燕의 귀족무덤인 辛庄頭 30호묘에서 출토된 동과이다. 신장두 30호묘 출토의 동과는 혈구의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격리형이며, 穿의 평면형태가 원형이기 때문에 부여 구봉리나 함평 초포리 유적에서 출토된 동과보다 늦은 형식이라고 한다.<sup>32)</sup> 신장두 30호묘에서 漢系 유물은 출토되지 않아 秦이 燕을 합병하는 기원전 222년 이전이 확실하다. 近藤喬一<sup>33)</sup>은 이 신장두 30호묘에서 출토된 동과의 연구를 통해 한국식동과의 출현은 기원전 3세기중엽 이전이며 기원전 4세기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3)</sup> 이양수와 近藤喬一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인다면, 신장두 30호묘보다 이른 형식의 동과가 출토된 부여 구봉리 유적의 연대는 이보다 이른 기원전 4세기말이나 3세기 전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식동검이 처음 나타나는 괴정동 단계는 기원전 4세기대, 동과가 처음 등장하는 구봉리 단계는 기원전 4세기말 내지 3세기 전반대, 그리고 동령류가 중심이 되는 전 덕산 단계는 기원전 3세기 후반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대는 일본 彌生時代の 절대연대와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본고에서 설정한 3단계에서 파악된 彌生時代 점토대토기와 한국식동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板付II식 단계의 상한을 橋口達也<sup>34)</sup>는 기원전 3세기대초로, 武末純<sup>35)</sup>은 기원전 4세기 중엽 정도로 보고 있어 3단계의 절대연대와 부합한다.<sup>36)</sup>

31) 李健茂, 2003, 『韓國式銅劍文化的 研究』,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

32) 이양수, 2007, 「IV. 고찰」, 『永川龍田里遺蹟』, 國立慶州博物館

33) 近藤喬一, 2006, 「燕下都出土の朝鮮式銅戈」, 『有光教一先生白壽記念論叢』, 財團法人高麗美術館

34) 橋口達也, 2003, 「炭素14年代測定法による彌生時代の年代觀に關聯して」, 『日本考古學』16, 日本考古學協會

35) 武末純一, 2004, 「第2章 彌生時代の年代」, 『考古學と曆年代』, 西川壽勝・河野一隆 編著, ミネルヴァ書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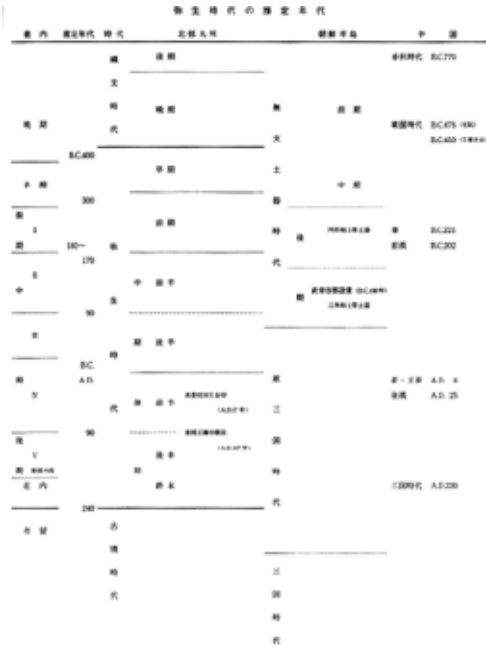


그림 11. 橋口達也(2003)의 편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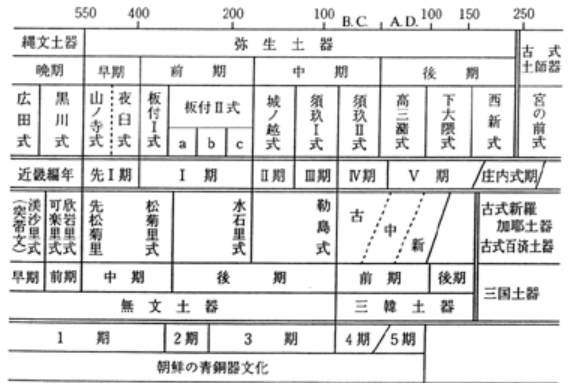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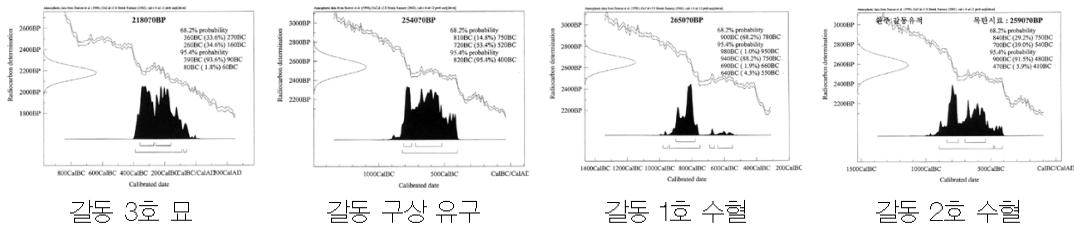


그림 12. 武末純(2004)의 편년안

4단계는 전국계 철기문화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는 시기로 기원전 3~2세기대로 편년되는 연화보-세죽리 유형, 늑도 유적에서 출토되는 彌生 전기말의 토기, 한계 청동기와 명사리식 토기로 미루어 보아 기원전 2세기대가 중심이다. 원형점토대토기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해안과 중서부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명사리식 토기’의 조합이 나타난다. 전국계 철기가 출토된 완주 갈동유적의 AMS측정치를 살펴보면 3호 토광묘에서 측정된 시료를 제외하고는 눈금맞춤연대가 모두 기원전 7세기보다 빨라 그대로 받아들여기는 어렵다. 다만 3호 토광묘는 다른 유구와는 달리 화살대를 시료로 하여 AMS측정을 하였는데, 눈금맞춤연대는 ‘320 or 210 Cal BC’로 측정되어 신빙성이 높다. AMS연대측정의 시료 신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36) 물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國立歴史民俗博物館의 절대연대관이나 曲り田 1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기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5단계의 유적은 중서부지방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영남지방의 경우 근접하는 목관묘군에서 원형·삼각형점토대토기와 漢系 유물, 와질토기, 전국계 철기 등이 출토되어 전 시기와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중서부지방에서는 파주 독서리에서 출토된 한경편과 시흥 오이도에서 출토된 철경부동축으로 한군현과 교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와질토기는 출토되지 않는다. 절대연대는 기원전 1세기대가 중심이다.

## V. 점토대토기문화의 확산 과정

이상에서 한반도 중서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의 등장,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중서부(서울·경기, 호서), 중동부(영동, 영서), 남부(영남, 호남)지방으로 점토대토기문화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

- 1단계** -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은 남양주 수석리 유적으로 점토대토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한반도 중서부 해안지방으로 보인다. 분묘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 2단계** - 점토대토기문화는 재지의 청동기문화와 교류하면서 유구석부와 석도·석촉 등 재지계석기를 받아들리게 된다. 또 이전 단계에서는 환상파수만 공반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조합우각형파수가 출토되어 시기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유적은 중서부지방과 중동부지방에만 존재하며 남부지방으로는 점토대토기문화가 아직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안성 반제리 등 중서부 지방의 유적과 함께 고성 송현리 B지구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점토대토기문화는 재지 청동기문화와의 경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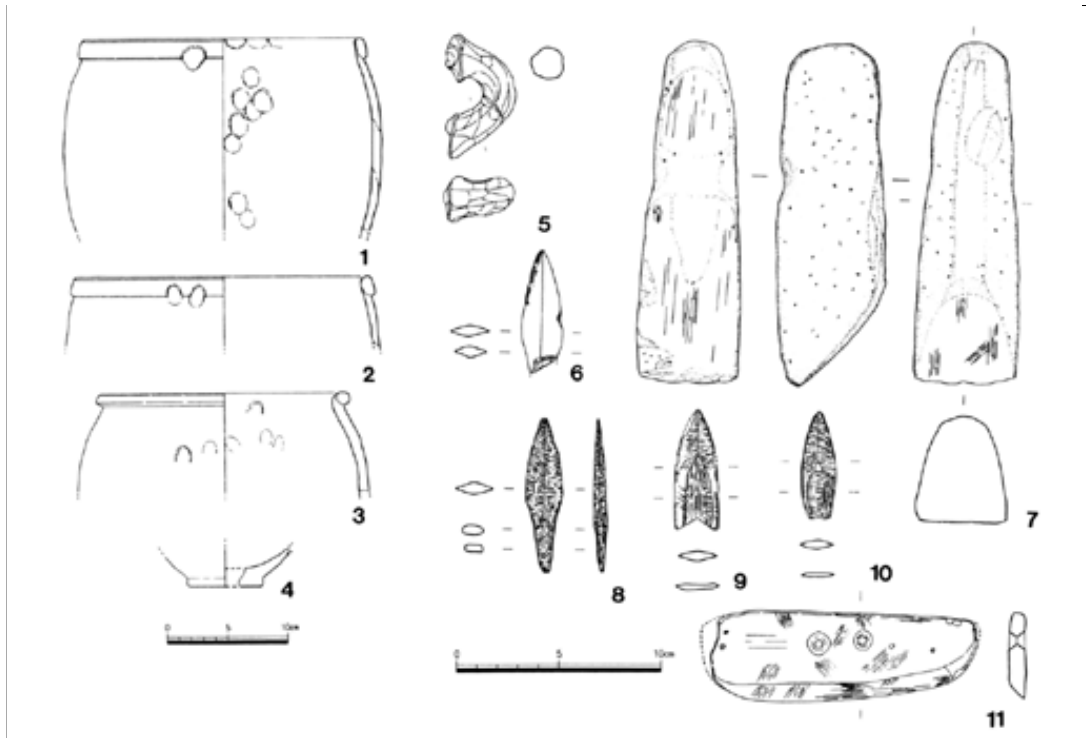


그림 13. 송현리 B지구 출토품(1~4,8:B2호, 5:B10호, 6·7·11:B9호, 9·10:B12호)

**3단계** - 환상파수가 사라지고 조합우각형파수·점토대토기·유구석부가 함께 출토된다. 대전 괴정동이나 아산 남성리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식동검을 비롯한 각종 청동기가 등장하며, 유적은 남한 전지역으로 확산된다. 중동부 지방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성 송현리 C·D지구, 양양 지리·정암리, 강릉 송림리·방동리, 양구 현리, 횡성 강림리 유적이 있다. 남부지방으로도 분포범위가 확대되어 함평 초포리, 화순 대곡리, 김해 대청, 합천 영창리, 하동 띄발골 유적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부터 점토대토기문화는 한국식동검 등 청동기문화와 함께 초기철기문화의 전형을 이룬다. 특히 호서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화순 대곡리 유적 등남부지방의 유물조합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서부지방에서 典型化 된 초기철기문화가 남부지방으로 파급된 것을 알 수 있다.

**4단계** - 점토대토기문화에 전국계 철기문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더해지는 시기이다. 전국계 철기는 호서·호남지방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중서부 해안지방과 남부지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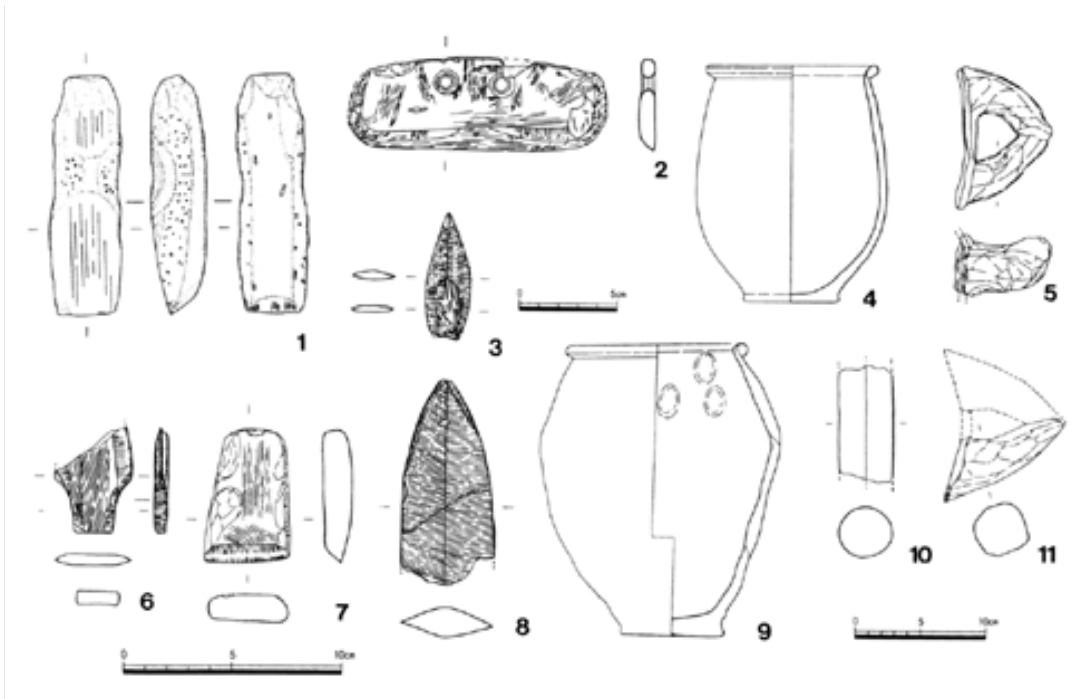


그림 14. 송현리 C·D지구 출토품(1~3:02호, 4:011호, 5:05호, 6~8:020호, 9:017호, 10·11:D지구 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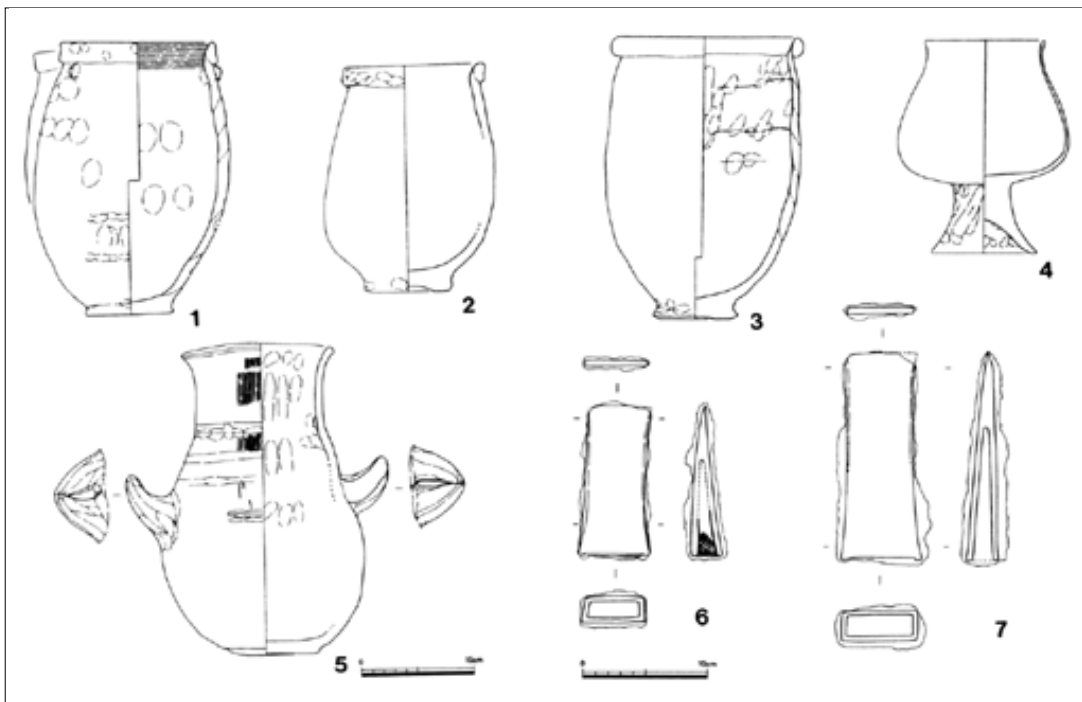


그림 15. 갈동 4호묘 출토품

서 출토된다.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완주 갈동 유적과 시흥 오이도, 일산 가와지, 광주 신창동, 사천 늑도, 경북 칠곡 유적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원형점토대토기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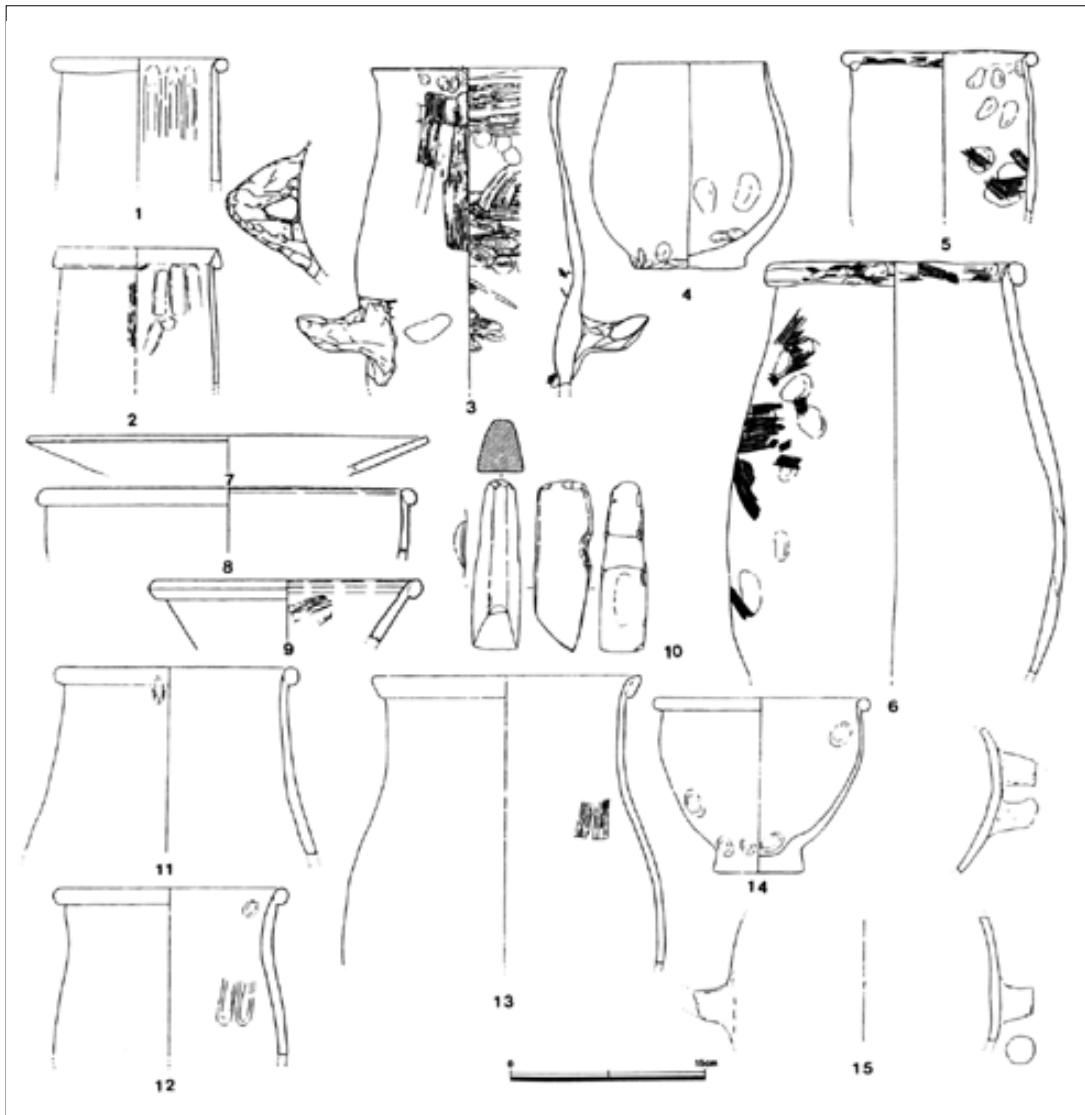


그림 16. 칠곡·연암산·금장리 출토품(1·2:칠곡3구역3호주거지, 3~6:동14호수혈, 7~10:대구 연암산, 11~15:금장리)

5단계 - 낙랑군의 등장으로 한식 문화와 전국계 철기문화의 2차 파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중서부지방에서는 파주 독서리 유적이 유일하며 남부지방은 특히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유적이 존재한다. 대구 팔달동, 창원 다호리, 경주 조양동 등 근접하는 목판묘군이 중심이다. 이 시기까지 점토대토기가 존재하지만 와질토기로 대표되는 원삼국문화가 주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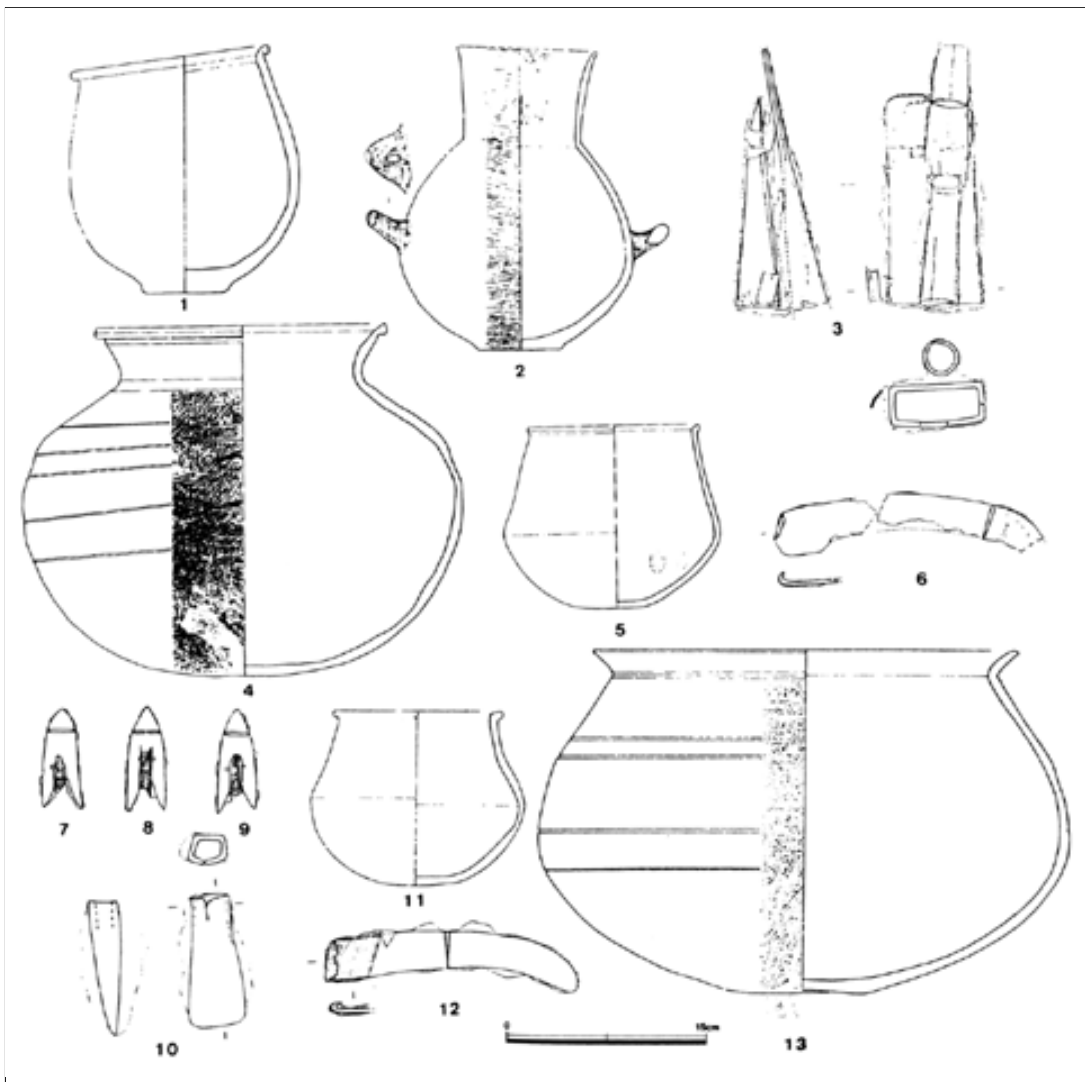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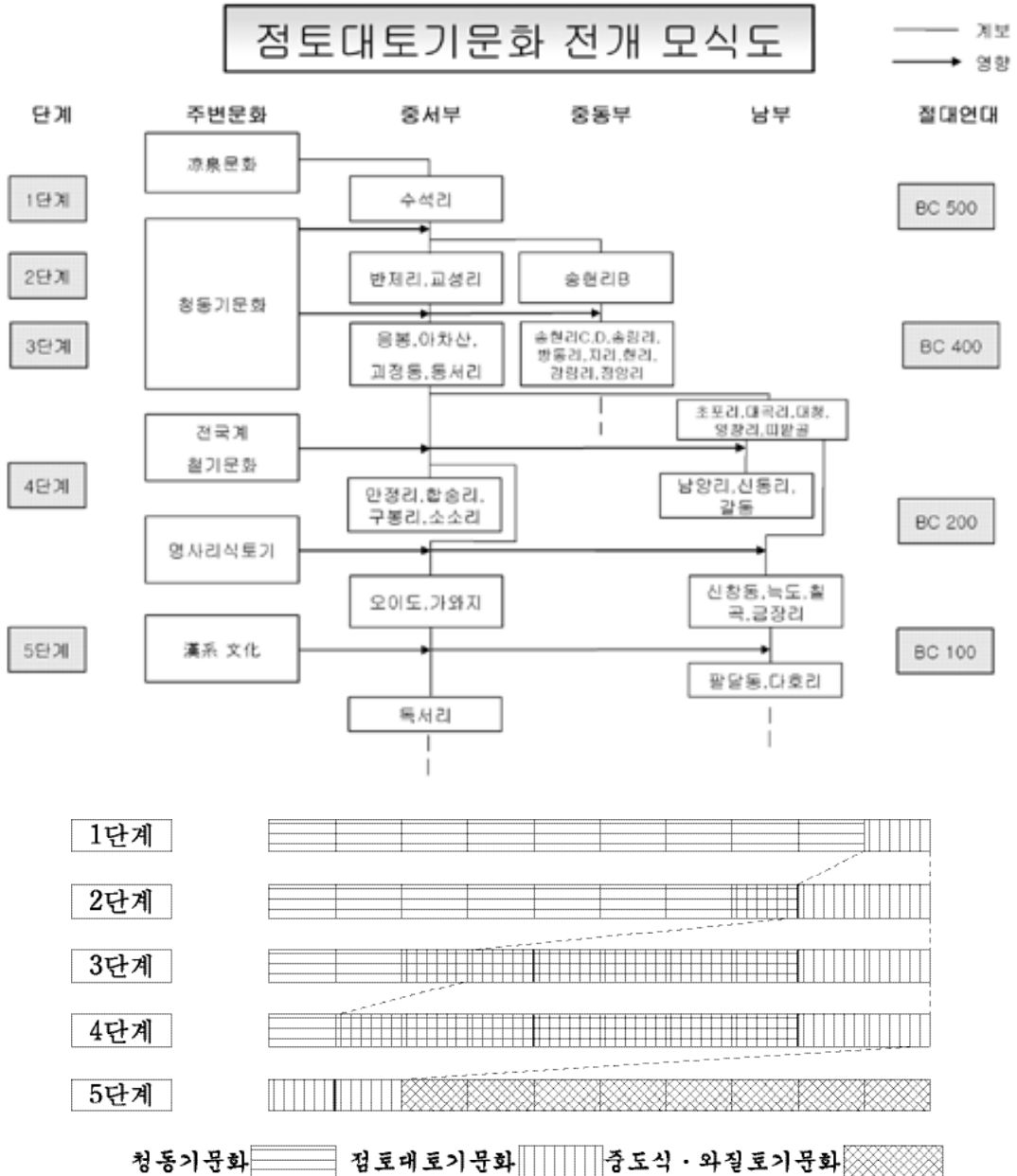


그림 17. 팔달동·다호리 출토품(1~3:팔달동 45호묘, 4~6:동 101호묘, 7~13:다호리 32호묘)

1~5단계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을 모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VI. 시대와 시기

앞서 점토대토기문화를 모두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하는 1단계, 한국식동검문화가 나타나는 3단계와 와질토기문화가 등장하는 5단계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런 점토대토기문화는 청동기문화(혹은 무문토기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다른 문화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라는 시대구분을 하고 청동기시대(혹은 무문토기시대)를 조기·전기·중기·후기 4시기로 분기하는 것이 되고, 후자라면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로 구분하고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후기 3시기로 나누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점토대토기를 포함한 초기철기문화(점토대토기문화, 한국식동검문화, 전국계 철기문화)를 ‘時代’로 인식할 것인가, ‘時期’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 먼저 두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다.

### ① ‘우리말 큰사전’ 상의 정의<sup>37)</sup>

가. 시대 : 역사적으로 구분한 어떤 기간(예 : 부족국가 ~, 새 ~, 조선왕조 ~)

나. 시기 : 정한 때

### ② ‘표준국어대사전’ 상의 정의<sup>38)</sup>

가. 시대 :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나. 시기 :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 ‘때’로 순화

꼭 위의 정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시기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시대는 ‘역사적으로 구분한 기간’으로 시기는 ‘시점이나 때’로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정의를 따르자면 초기철기문화는 ‘역사적으로 구분할 만한 기간인가?’의 여부가 시대냐 시기냐를 가름하는 관건인 것이다.

한편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선사시대는 역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정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선사시대는 대개 도구의 발달을 근

37)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38) [http://www.korean.go.kr/06\\_new/dic/dic01.jsp](http://www.korean.go.kr/06_new/dic/dic01.jsp)

거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도구의 발달은 생업경제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업경제 방식의 변화와 이와 연동하는 사회적 변동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즉,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보다 ‘수렵채집사회 → 수렵채집+초보적 단계의 농경사회 → 집약적 농경사회’라는 도식이 강조된다. 이런 관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동기시대 조기 설정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생업경제 방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초기철기 문화를 기존 청동기문화와 다른 ‘시대’로 구분 지을만한 증거는 없다. 초기철기사회가 이전 청동기사회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업경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후 원삼국시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초기철기문화를 ‘시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사시대의 시대구분 기준인 ‘도구의 발달’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의 구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국가의 성립 여부이다. 이의 준거로는 율령의 반포, 상비군의 존재, 관료제의 확립, 제정의 분리, 도성의 존재, 고분의 등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 최소한 고고학적으로는 큰 반론이 없다.

하지만 원삼국시대(고구려, 부여 제외)와 그 앞 시대의 구분은 위와 같은 ‘제도상의 발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물질문화와 ‘삼국지 위지동이전’이라는 중국사서의 기록에 의존한다. 즉, 철기문화의 확산, 와질토기의 등장, 부장품이 율등한 집단묘지(목관묘군)의 조영과 함께 중국사서 상의 三韓의 존재를 근거로 든다. 이런 이유로 이 시대를 소위 ‘原史’로 보고 있다. 초기철기문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한국식동검문화, 부장품이 율등한 적석석관묘, 전국계 철기의 등장과 함께 ‘馬韓’의 존재는 초기철기문화를 이전 청동기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기보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철기문화는 청동기시대의 한 ‘시기’라기보다 새로운 ‘시대’로 볼 수 있으며, 송국리유형을 지표로 하는 이전 단계는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1~5단계 중 어느 단계를 초기철기시대로 볼 것인가? ‘점토대토기문화의 존속기간=한국식동검문화의 존속기간’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어차피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점토대토기·한국식동검과 각종 청동이기 그리고 적석석관묘의 등장을 중요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점토대토기와 한국식동검의 등장 시차를 1세기 정도 인정한다면 점토대토기의 등장 시점(1단계)과 한국식동검의 등장 시점(3단계) 중 어느 한 곳을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구분을 한국식동검문화·적석석관묘 등 물질문화와 함께 마한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마한’이라는 정치체는 ‘原史’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은 마한의 등장과 유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마한의

성립은 현재의 고고학적 상황으로 보아 한국식동검문화의 등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은 한국식동검문화의 시작과 동일시하여 그 절대연대를 기원전 4세기 대로 보고 싶다. 따라서 점토대토기의 등장부터 한국식동검문화의 등장까지 1세기 정도의 기간은 청동기시대 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5단계 역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와질토기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므로 초기철기시대와 구분하여 원삼국시대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초기철기시대’는 앞서 살펴본 3~4단계만을 지칭할 수 있겠으며 절대연대 상으로는 기원전 4 ~ 2세기의 약 300년의 기간이다.

## VII. 향후 과제

점토대토기라는 무문토기를 중시하여 이전 청동기시대와 확연하게 다른 사회 발전 단계를 보이는 초기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에 위치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보다 ‘한국식동검이 반출되는 사회가 이전 청동기사회와 질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독립된 시대로서 초기철기시대를 설정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초기철기시대의 ‘초기’나 ‘철기’라는 용어로 인해 이 시대 문화상을 적확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한다면 시대명을 고치는 편이 우리나라 선·원사문화의 자연스러운 발전단계를 보다 바르게 인식하는 첩경일 것이다. 또 우리역사의 발달과정 상 이미 고조선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를 고조선이 ‘韓’과 병존하는 개념으로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점토대토기·한국식동검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이 시대의 정체성을 완전한 ‘先史’의 개념인 청동기시대 혹은 무문토기시대보다 ‘原史’의 개념인 초기철기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